'10.12.15(수) 10:0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로"

- 2011년 지식경제부 업무계획 -

2010. 12. 15

지 식 경 제 부

목 차

I. 그간의 노력과 성과 ····· 1

II. 2011년도 정책방향 ····· 2
1. 정책환경과 대응방향 ····· 2
2. 비전과 전략 ····· 3

III. 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 ····· 4
1. 중소·중견기업을 역량있는 파트너로 육성 ····· 5
2. 지역산업의 자생력 강화 ····· 10
3.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추진 ····· 14

IV. 융합·녹색을 선도하여 성장 가속화 ····· 16
1. 융합을 통한 산업역량 극대화 ····· 17
2.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24
3. 안정적 에너지·자원 기반 확충 ····· 30

V. 무역 1조불시대 선진경제 구축 ····· 33
1. 글로벌 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 ····· 35
2. G20 시대의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 ····· 39
3. 선진경제에 걸맞는 산업 플랫폼 혁신 ····· 41
4. 다함께 잘사는 선진문화 확산 ····· 47

I. 그간의 노력과 성과

□ **(그간의 노력) '글로벌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에 총력**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자동차 세제 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총력수출지원 등 **적기 대응체제** 가동

○ 17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체계 마련, R&D시스템 개편, S/W대책, 중견기업 대책 등 **미래산업 비전과 전략** 제시

○ 원전·플랜트 수출, 전기차 개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긍정적 성과) 빠른 경제회복세 시현과 산업경쟁력 강화**

○ 사상 처음 **수출 세계 7위**('10), **무역흑자** 2년 연속('09~'10) **400억불 달성**

＊ '09년 수출 10위권 진입(9위)

○ OECD 유일의 7분기 연속 (+) 경제성장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미흡한 부문) 온기의 확산과 가시적 성과 도출의 과제**

○ **산업융합·녹색화 추세** 본격화 등에 대비, **주력 산업의 미래 대응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

○ 경제회복의 온기가 고루 확산되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선진국 진입 애로요인 우려

○ 수도권-지역간 일자리 창출능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등 **지역산업의 자생력 제고가 미진**

○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인력난** 등 **고용문제**를 산업정책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할 필요

II. 2011년도 정책방향

1 정책환경과 대응방향

1. 대내·외 상황진단

기회 요인	위기 요인
○ G20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위상	○ 선진시장 회복지연 가능성
○ 신흥시장의 성장 지속	○ 유가·원자재가 등 불확실성
○ 미·EU와의 FTA 체결	○ 중국 등 신흥경쟁국과의 경쟁 격화
○ 융합, 녹색 등 新산업 트렌드 확산	○ 저출산·고령화 대비 필요성 증대

2. 대응 기조

동반성장으로 성과 확산, 경제체질 강화로 선진경제 도약

□ **(성과확산 및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의 성과가 **경제 각 부문에 파급**되고, **고용확대 노력**으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보

□ **(세계시장 변화 대응)** G20이후 **글로벌 시장변화**와 **무역 1조불 시대 개막**에 따른 **대외 경제전략과 산업의 체질**을 재정비

□ **(불확실성 대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자원수급 불안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우리경제의 기반을 강화**

□ **(신성장 결실 가시화)** 융합·녹색분야 등의 성장동력화 노력을 배가하여 **구체적인 결실을 도출**

2 2011년 비전과 전략

다 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

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	융합·녹색을 선도하여 성장 가속화	무역 1조불시대 선진경제 구축

1 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착
- 지역산업의 자생력 강화
- 제조·서비스업의 동반성장

2 융합·녹색을 선도하여 성장 가속화

- 융합을 통한 산업역량 극대화
- 저탄소 녹색경제 본격전환
- 안정적 에너지·자원 기반 확보

3 무역 1조불 시대 선진경제 구축

- 글로벌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
- 경제체질 선진화
- G20이후 역할과 책임 제고

III. 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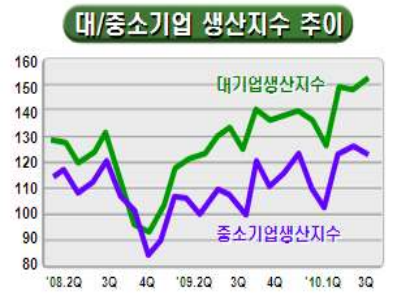
동반성장에 대한 문제 인식

◇ 수출·대기업 주도의 압축 성장을 통해 **IMF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 수출증감률(%): ('97)5.0→('98)△2.8→('99)8.6, ('08)13.6→('09)△13.9→('10.1~10)30.1
* 실질 GDP(%): ('97)5.8→('98)△5.7→('99)10.7, ('08)2.3→('09)0.2→('10^{e})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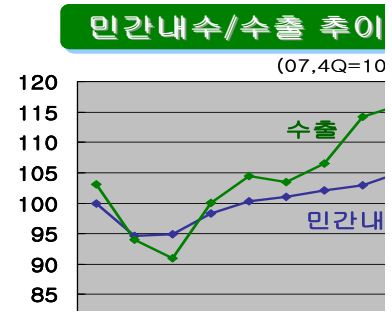
◇ 그러나, **대-중소기업, 수출-내수** 등 **불균형 야기**

대-중소기업



* 통계청

수출-내수



* 한국은행

◇ 불균형 지속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위축**될 우려

* 잠재성장률 추이(국회예산정책처, %): ('91~'00)6.0→('04~'08)4.1→('09~'13)3.7

○ 우리의 과제

□ 경쟁력 있는 **대 -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구축**

□ **지역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여 성장기반을 강화

□ **제조업-서비스업 동반성장**으로 일자리 확대

1 중소·중견기업을 역량있는 파트너로 육성

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 및 본격 이행

◇ 지난 9월 대책 확정·추진 이후 **동반성장의 추진동력**이 **가시화**
* 주요 대기업의 현금결제 100% 선언,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
* 지역별 중소기업 설문조사(11.24~25) : 납품대금 인상요청 수용(71%), 현금결제 비중 상승(35%),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의사소통 구체화(41%)

⇒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환경 구축 및 문화 확산에 주력**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주요정책에 대한 **민간부문 합의 도출**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10.12.13 출범)

* 대·중소기업 CEO 및 공익대표들로 구성, 동반성장지수 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주관 등

□ **(동반성장지수)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 및 **협력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를 통해 동반성장의 지속적 추진기반 마련

□ **(점검체계 구축)** 업종·지역별 **동반성장 이행상황의 주기적 점검** 및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10.12월 개소) **활성화**

* 사이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12개 주요산단 중심의 지역별 센터 가동

□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회적 합의(동반성장위)를 기반으로 자율적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 **(동반성장 투자기반) 5大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이행**(1조원, '11~'12) 및 이에 대한 **세액공제***(7%) **신설,** 동반성장형 공동 R&D 확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할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정

□ **(업종별 확산)** 수급 구조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 **업종별 동반성장전략 추진**을 통해 **동반성장의 체감효과를 극대화**

* 자동차, 조선, 철강 등 11개 업종의 종합적 실행계획 발표('11.1월)

업종	수급 및 협력구조 특징	핵심 이행 방향
완성품·부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수직 계열화 수급구조 – 2·3차로 연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중요 ·2·3차 협력업체로 동반성장 확대 긴요	·대중소기업 공동 R&D 확대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현금결제 등 대기업 중심의 거래 질서 개선 ·2·3차 협력사로 정책대상 확대
소재 철강 석유화학 섬유	·대중소기업 협력형 수급구조 – 대기업이 원료 공급 – 다수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 표준거래제 등 투명거래 긴요	·가격예시제, 표준거래제 등 공정거래 정착 ·품질표준화 기술지원 확대 ·중소기업 인력·자금 애로 해소
신재생에너지	·대중소 협력문화의 형성단계	·해외공동진출 등 바람직한 동반성장모델 창출 확산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결제관행 개선,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문화 확산, 2·3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책임 강화 추진

○ **대기업 출연 '동반성장 펀드' 신규 조성·확대** :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

* (신규 조성) 기계, 반도체, 유통 (규모 확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 **원자재 일괄구매·공급 확대** : 협력기업에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자동차, 조선, 기계)

○ **협력사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 :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지원(자동차, 조선, 휴대폰, 유통)

○ **R&D 생산성 향상** : 연구인력 파견, 기술지원 전담팀 운영, 공동 R&D 등 중소기업의 품질개선 지원(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참고】 주요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업 종	실행계획 핵심내용
기 계	· **「기계업종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매년 20억원 출연, '13년 재조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2·3차 협력업체 지원 ·금융·공정거래·교육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업체 확대를 위해 **대기업 모니터링 전담조직 운영**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요기업 출연을 통한 반도체 펀드(1,500억원)를 조성**하여 창업·초기 팹리스 및 장비 업체를 지원 ·대기업이 협력업체 제품 품질을 평가·인정하는 **반도체 성능평가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시스템을 신규 구축**
철 강	·철 스크랩 거래의 70%이상을 차지하는 **90일 이상의 어음 할인기간을 '11년말까지 60일로 단축** ·**철 스크랩 KS 인증 확산**을 통해 품질제고, 가격결정의 투명성 확보
석유 화학	·중소 플라스틱업체에 공급하는 **합성수지 원료에 대한 "1개월 가격 예시제(서면)" 전면 시행** ·플라스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품질 등 연수 프로그램 설치 및 연수업체 확대**
소프트웨어	·**하도급 대금직불제·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하도급 금액 하락을 초래하는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인력 교육지원·현금결제비율 상향(80% 이상), 민간 수요예보, 社별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 경영 멘토링** 등 협력업체 지원 활성화
섬 유	·**가격인상 사전공지 의무화, 임가공 기준단가 공개, 적정 임가공료 협의** 등 기업 자율의 조정문화 확산 ·불공정거래 방지, 표준거래계약서 체결 강화 등 **유통업체와 공정거래 확립**
신재생 에너지	·중소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증펀드**(1,000억원) 조성 ·태양광, 풍력 등 **해외시장**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조 선	·**민관 공동기술개발 펀드(300억원) 조성,** 원자재 일괄 구매·제공 시행 ·조선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 설립('10.11월), 실시간 A/S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협력업체의 기자재 직수출 지원**
자동차	·**원자재 일괄구매·공급**품목을 다양화하고, 수혜범위도 2차 이하로 확대 ·**'자동차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여 업계 자율적 공정 거래질서 확립, 협력사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
휴대폰	·납품대금 결제 프로세스 개선 ·대중소 공동기술개발 지원센터 운영,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 구축 등

나. 중소·중견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제고

◇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역량을 확보토록 **자기혁신 및 경쟁력 강화 노력 촉진**

□ 핵심역량 제고 지원

○ **(R&D)** 자생력 확보의 핵심인 원천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R&D지원 비중 확대** 및 **우수 中企연구소 지원 강화**

* 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주체중 중소·중견기업 비중 : ('09) 17.9%→ ('12) 25%
* 중소중견기업 대상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원 확대 : ('10)409→ ('11)508억원

○ **(고급인력)** 고급연구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

* 출연연의 석박사급 고급인력 파견 확대 : ('10) 200명 → ('11) 300명

○ **(마케팅)**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독자적 수요 창출기반 확충**

* '동반진출지원센터' 설치(KOTRA, 2월중), 중소중견 브랜드 역량 강화 지원사업 도입 등

□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 **(단계적 성장)** 중소기업 졸업시 **조세부담 완화, 자금조달 확대** (특별 온렌딩) 등 단계별 지원제도 본격 시행

* 고용증가 조건부 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졸업기업 보증만기도래 부담 완화 등

○ **(World-Class 300)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 본격 시동

* 추진 일정 : 후보군 발굴(30개사) → 성장전략 분석 및 맞춤시책 개발('11.3월)
* '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 육성

□ 중소·중견기업의 자기혁신 촉진

○ **(상시구조개선)** 기업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세제, 금융, 각종 절차·제도상 특례** 등 **패키지 지원** 방안 마련

○ **(생산성 혁신)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성 혁신방안** 개발·확산

*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사업 시행, 생산성본부 제조혁신센터 가동('11.1월)

【참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요람 : QWL 밸리 조성

◇ **기존 노후 산업단지**를 **3터(일터·배움터·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출**

* QWL :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 **(일 터)**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생활의 질** 향상

○ **QWL 밸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4개 단지**(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에 주거·복지·편의시설* 등을 확충

* 반월·시화 기숙사형 오피스텔 및 주유소, 시화 복지센터, 구미 체육시설 개선, 익산 도시형 생활주택 등 20개 세부사업을 '11년중 착수

○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를 조성하고 세부사업에 투자

* '11년 민관 합동으로 약 6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

□ **(배움터)** 청년들이 일하면서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 형성

○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 1/4분기중 산학융합지구 사업자 선정 및 연내 건설 착수

○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11년부터 **5년간 현장 맞춤형 인력 1만명** 양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즐김터)** 일하기 편리하고 산업안전이 보장되는 즐김터 구축

○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대중교통을 확충**하여 단지내 교통 여건을 개선

○ 고용부 **산업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산업단지에 적극적으로 도입

*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5개 단지), 산업보건센터 설치, 안전보건생활화 캠페인 등

○ 산업단지의 날에 지역민이 함께하는 음악회, 기능경진대회 등 개최

- 단지내 여유공간에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문화·예술강좌 제공

2 지역산업의 자생력 강화

지역산업 육성의 성과

◇ **지역산업 기반 확충**에 지난 **3년간 4조원 투입**

* 지역산업육성 예산 : (03~07) 4.28조원 → (08~10) 3.92조원

○ **지자체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으로 전환

*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 권역별 맞춤형 **신성장동력**을 발굴·확충

* 광·LED(호남권), 이차전지(충청권) 등

○ 지역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09년 485개→10년 601개)를 통해 **기업 창업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비수도권 창업기업 : (07) 4,949개 → (09) 6,257개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연간평균) : (03~07) 283개 → (08~09) 478개

○ 보완 과제

「일자리·창업·현장」 중심으로 지역산업 지원체계 전면 개편

□ 양질의 **지역 일자리 부족**

* 전문직 비중 : (수도권) 12%, (비수도권) 8%

□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

□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R&D 경쟁력 강화 필요성**

* 연구개발비 비중 : (수도권) 64.1%, (비수도권) 35.9%
* 산단 입주기업 연구소 보유비율 : 10.5% (대기업 39.7%)

가. 지역 창업과 일자리 확대

□ **(성장동력 창출)** 지역별 차별화된 성장동력 창출 및 창업 활성화

○ 지역의 연고자원과 지식서비스를 결합한 **'지역 서비스기업*** **육성방안'**을 마련(상반기)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예시) 부산: 해양산업, 강원: 의료관광, 제주: MICE·물산업 등

○ TP 입주기업 중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큰 200개 신생 기술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지역 Star 육성 프로젝트'** 추진

* TP가 지역 Star company의 투자유치, 기업공개(IPO), 해외협력 등을 종합 지원

○ **지역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지방의 신증설투자 기업에 대해 신규 지원

* (현행)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개편) 이전기업 지원 +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 **(지역 성장거점 조성)** 지역 거점도시의 고급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

○ R&D·비즈니스가 융합된 **R&D특구**를 **대구·광주에 신규 지정**(1분기)하고, 주요 광역권에 **융합·녹색산업의 지역거점**을 조성

* (대구 R&D특구) 대구,경산 등에 22Km^2, (광주 R&D특구) 광주,장성 등에 18Km^2
* 클린디젤(광주), 그린전기차(울산), 탄소밸리(전주), 메디컬섬유(경산) 등

○ 안경, 인쇄, 출판 등 자연발생적인 **도시의 산업집적지**를 **지역특구**로 지정, **R&D·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도시산업 활성화**

* 예시 : (부산) 가죽·가방·신발, (대구) 안경·섬유, (대전) 영상·시계·인쇄

□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화)** 대학생의 지역기업 바로알기를 통해 지역內 **구인구직 활동의 선순환 기반**을 조성

○ 1,000개 지역 선도기업을 선정, 140여개 대학취업센터에 제공하는 **"지역인재 - 우수일자리 매칭 사업"** 실시

○ 대학생이 기업·연구소·산단 등 지역발전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대학생 지역기업 체험행사"** 확대('10년 4천명 → '11년 1만명)

나.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 **(新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지역의 자율성·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지원체계 전면 개편**

○ 산업융합, 녹색·서비스, 일자리 등 차별화된 지역산업발전 목표를 지향하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10년)과 **실행계획**(3년) 마련

○ 지역에 산재된 **지역산업지원기관**을 **성과중심으로 재편**하고, 「광역-시도-기초지자체」의 복잡한 **지원체계를 통합·단순화**

□ **(현장밀착형 산학연 클러스터 확충)** 지역의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제공

○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밀착지원하기 위해 **'기업주치의 센터*'**를 설립하고, 광역권별로 **'산학 현장지원단**'**을 운영

* 퇴직엔지니어 등 산학의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기업애로 발생시 30분 이내 지원
** 광역권內 주치의센터 및 산학연간 네트워크 Hub 기능 수행

○ 현행 R&D지원 중심의 **테크노파크(TP)**를 **지역 비즈니스의 거점기관化**하고,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역할을 강화

* 지방기업의 창업, IPO, 성장단계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기술협력 확대 등

○ **소액·분산형** 지역특화상품 마케팅 지원을 **지역별 대표상품** 선정,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명품브랜드**로 육성

* 지역별 대표 상품(5개)을 선정, 대형마트(백화점 등) 입점 등 판로 개척 지원

□ **(광역중심으로 부처·시도간 협력 확대)** 부처간·시도간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 상호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원정책의 시너지 제고

○ 농식품부와 農·가공·유통이 융합된 **6차 산업**을 **육성***하고, 교과부와 **광역선도산업 전문인력 양성** 협력사업 추진

* 농수축산업(1차), 가공산업(2차), 직판장·음식업·관광업(3차)을 연계

○ 산업융합, 지식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광역시도간 연계사업' 확대**

* (`10) 540억원 → (`11) 1,000억원 (신규 과제 경우 50억원 내외 지원)

【참고】 지역별 주요 성과 및 계획



3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추진

◇ **제조업內 일자리 수는 정체**되어 있는 데 반해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고용여력은 확대**

* 취업자수 추이('04→'10년, 만명) : 제조업 418→399, 제조업연계서비스 195→261

⇒ **제조업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 IT활용 新서비스 창출

○ **(3D융합 서비스) 의료, 조선, 광고** 등에 **3D기술을 융합**한 신규 사업모델 발굴

* (예시) 3D 안경과 모니터를 통해 수술 훈련을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개발

- **단기** : 초기시장 창출 및 기업현안 애로해소 추진

* 3D 기술 응용서비스 시범사업('11년 30억원), 3D 장비지원센터 구축

- **중장기** : 기술역량강화, 3D 컨텐츠기업육성, 해외진출기반 강화

* 3D 미래핵심 기술개발, 표준화, 금융시스템 개선, 분리발주 활성화, "World 3D EXPO" 등 전시회 개최, 수출 지원 등

○ **(전자문서 활용서비스)** 전자문서 산업의 제도기반을 확충

* 원본(종이문서)만을 인정하는 관행, 생체인식 등 신기술 적용에 대한 법적 효력이 모호→ 종이문서 분류·보관·폐기 등에 연 28조원이 비용이 발생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행안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등 추진

○ **(엔지니어링)** 전문가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해외진출 확대

* 전문대학원 설립('11년 40억원), 국제공인 엔지니어링 관련자격증 국내 개설 등

○ **(교육서비스)** 스마트폰 활용 **e-러닝**, 가상·증강현실 활용 **e-트레이닝*** 등 **스마트러닝 모델 개발·확산**

* 이러닝법 개정(이러닝발전시책고도화, 교육기관 이러닝활용 등 지원)

○ **(설계서비스)** 여러 기업이 동시에 활용가능한 **"온라인 제조설계**(스마트 매뉴팩처링)**" 서비스** 확대('11년 생산성향상 지원, 29억원)

□ **에너지·신성장동력 수요에 부합**하는 **新서비스 발굴**

○ **(자원개발)** 해외에 의존하는 매장량 평가, 탐사·시추 등 **자원개발 서비스분야**의 **전문기업 육성 추진**

* 3대 분야(엔지니어링, 유·가스전 기술 평가, 광구운영관리) 선정 → 국내외 기업 참여하는 R&D 센터, 합작회사(JV) 설립 추진

○ **(시험인증) 녹색·신성장분야** 시험장비 개발, 전문인력(시험인증·해외기술규제 컨설팅 등) 양성을 통해 시험인증서비스 기업 육성

* 스타브랜드과제 전략품목(222개), R&D과제(1,197개)에 시험인증 인력양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신성장 동력 분야 R&D에 장비개발 사업 반영 추진

○ **(녹색 리스 서비스)** 제품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품의 기능·품질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新녹색서비스 활성화

* 기존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공급 가능한 유망모델 발굴 및 확산방안 마련

□ **디자인·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

○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산업의 **고도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동대문** 등을 패션집적지로 육성하고, **아시아 패션허브**로 도약 추진

* 동대문,대구 패션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11년), 동두천 토탈패션센터 신설추진

- 도심 여성인력, 취약계층의 **인력 유입 여건을 개선**하고, 숙련도 향상을 위해 **생산숙련 인력의 재교육 강화**

* 숙련집약형 토탈패션 현장인력 재교육(700명), 섬유패션 재직자 교육(1,800명, 섬산연) 등

- 아시아 선도 **브랜드 발굴**과 **세계적 브랜드 디자인 인력 양성**

* 패션디자인창작지원(창작스튜디오 100명), 패션글로벌비즈니스 전문인력양성(800명) 등

○ **(디자인) 산업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R&D내 디자인 비중 확대, 디자인 이머징분야**(공공서비스 디자인 등) **육성**을 통한 디자인 新시장 창출

* 공공서비스 디자인 : 제품이 아닌 공공서비스(에너지,치안,교육 등)를 디자인 주도로 개선

- 디자인·공학·경영학 등이 접목된 **융합형 디자인대학**을 **확대**('10년 8개→'11년 10개)하여,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

IV. 융합·녹색을 선도하여 성장 가속화

한국경제가 당면한 상황

◇ **(시장·기술의 변화)** 기술의 **융합·스마트화 가속화**, 글로벌 **녹색혁명 본격화** 추세 속에 국가간 경쟁 심화

* 자동차부품 중 IT융합전자부품 비중(%) : (`10)소형차 10-15, 대형차 20-30 → (`15)45
* 신재생에너지시장 : 5년간 연평균 28.2% 성장('09년 1,920억불)

○ 특히, **한·중·일 분업구조**가 **전면적 경쟁구도**로 **전환**

* 중국 세계시장점유율 변화('05→'10) : (자동차)8.4→24%, (태양전지)3→23%
* 일본의 핵심부품소재 지배력 : LCD 편광판필름 100%, LNG 보일러설계 100%

◇ **(위협요인) 핵심·원천기술 부족, 에너지 多소비형 산업구조, 중-일간 넛크래킹** 가능성 등은 우리 경제를 위협

* 기술무역수지(억불) : ('07)△29.2→('08)△31.4→('09)△30.5
*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전체 에너지소비 비중('08) : 韓16.3, 日14.3, 獨11.6, 美8.1%

◇ **(기회요인)** 높은 **IT경쟁력, 다양한 제조기반, 기술친화적 소비시장, 녹색성장**에 대한 높은 인식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

* ICT 개발지수(ITU) : 세계3위 * ICT국제경쟁력지수(日총무성) : 세계1위
*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10.10월),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10.12월)

○ 새로운 10년의 과제 : 융합·녹색분야 선도를 통한 우리의 비교우위 확보

□ 융합·녹색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 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기반 구축

1 융합을 통한 산업역량 극대화

가. IT융합을 통한 신산업 선도

◇ 반도체 등 **세계적 수준의 IT기반 산업**과 **SW, 시스템 반도체 접목**을 통해 **IT융합 신제품 시장 선도** 가능

IT기반산업 경쟁력		IT융합 핵심요소		IT 융합 신제품 출시
메모리반도체(1위), 디스플레이(1위), TV(1위), 휴대폰(2위)	+	소프트웨어(SW) 시스템반도체(SoC)	⇒	스마트 TV 4G 스마트폰 디지털 인테리어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 그간의 "**추격형**(follower)" 방식을 탈피, "**1등 전략**"을 통해 IT **융합 선도국**(leader)**으로 도약**

□ 산업기반이 취약*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의 동반육성**을 통해 IT융합 경쟁력 제고 (SW-SoC 동반성장전략 수립, 11.2분기)

* 국내 패키지SW시장은 외국기업이 64% 장악, SoC 국산화는 자동차용 0%, 휴대폰 19%
* SoC설계인력 규모('09년) : 미국 A社(12,800명), 대만 B社(4,100명), 한국 C社(216명)

○ **(기술개발)** 경쟁력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수요연계형 R&D** 추진 ('11년 1,740억원)

* SoC : 베이스밴드 모뎀칩, 자동차용 반도체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지원 ('11년 520억원)
* S/W : 국방보안임베디드 분야를 중심으로 대형 SW R&D 추진 ('11년 1,220억원)

○ **(인력양성) R&D연계 인력양성, 해외 고급인력 초빙** 등 전문 인력 확보

* SoC : 설계전문 교수확보('10년 20명 →'15년 100명 목표) / 창의적 SoC 석·박사 양성('10년 연60명 →'15년 연300명 목표)
* S/W : SW마에스트로('10년 연100명 →'15년 연150명 목표) / 석박사급 SW인재 양성('10년 연70명 →'15년 연150명 목표)

○ **(생태계 조성) 수요기업-SoC기업-SW기업 협력시스템** 구축·확산

* SoC : 팹리스-파운드리 개방협약, 반도체펀드 조성, Star 팹리스 기업 육성,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 S/W : Global Practice 도입을 통한 시장 선진화, 대·중소기업간 시장자율질서 확립 등

【참고】 IT융합의 주요 신시장

융합 시장		주요 추진전략
하이터치 (high touch)	**스마트 TV** ('15년 2,383억불) 	• **UX, 플랫폼 등 핵심기술 확보** • **공공분야 앱 개발 시범사업**(11년)
	4G 스마트폰 ('15년 6억대) 	• **4G 베이스밴드 모뎀, SW 개발** • **차세대 테스트 인프라 구축**(11년)
	태블릿 PC ('15년 2.7억대) 	•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 **앱 서비스 촉진**
하이믹스 (high mix)	**IT+자동차** ('15년 2,000억불)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 **융합 신뢰성 지원 센터 구축**(11년)
	IT+조선 ('15년 176억불) 	• **원격선박관리 항해 통신시스템 개발** • **조선IT혁신센터 개소**(11.3월)
	IT+농업 ('15년 166억불) 	• **식물공장 및 생장 관리시스템 개발** • **U-농업 석박사급 인재양성**(年30명)

나. 바이오·헬스 신산업화 본격 추진

◇ 고령화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 급증**
* 세계 바이오시장규모(IMS) : ('08) 2,960 → ('15) 7,021억불

◇ 국내 **바이오산업**의 **도약기반**도 확보
* 세계 3번째로 바이오시밀러 규정 마련, 바이오벤처기업 ('00)8개→('10)65개

□ **(바이오)** 내수 →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전환**

○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의 **성과***를 **조기 도출**하고, **신약 R&D 집중투자**** 추진

* 유방암 치료제, 성장호르몬 제품 출시('11.하반기)
** 전주기 신약개발사업('11년 150억원), 천연물신약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186억원) 등

○ 산업 글로벌化의 선결조건인 **설비확충*·임상지원 확대**** 추진

*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민간투자(200억원), 지역바이오특화센터 c-GMP급(美 FDA)으로 구축
** 신약 임상수행기업 대상 바이오메디칼 펀드(11.상반기, 1000억원) 운용

○ 식물자원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할 **바이오화학 신시장 창출 추진**

* 실증플랜트 구축, R&D 지원 등 종합전략안 마련('11.상반기)

□ **(의료기기)** 수입중심 →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3D내시경 등 **융합의료장비** 25개 **전략품목 개발**(지경부·복지부)

○ 의료기기 **R&D지원 기반 구축**

*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오송)내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11년 132억원)

□ **(헬스케어) 의료 패러다임 전환**(근거리→원격)에 대응한 신산업 발전기반 구축

○ **스마트케어산업***(만성질환자 대상) **본격화** 및 **u-Wellness****(일반인 대상) **시범사업 본격 실시**('11.2분기)

* 만성질환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세계최대규모 원격의료서비스 사업(총 520억원)
** 피트니스센터 등과 연계, 건강한 일반인 대상 비즈니스모델 개발('11년 20억원)
*** 'u-Wellness 신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11.2분기)

다. 주력제조산업의 융합형 고부가가치화

◇ **차세대 융합형 제품, 핵심소재 개발을 통해 주력제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全산업대상 '융합산업 로드맵' 수립('11.下)하여 융합의 메가 트렌드 제시

□ **(자동차)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을 통해 전기차 세계 시장 선점

○ 전기차 양산을 위한 대형 R&D 추진,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및 소재 국산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부품개발** 등

* 모터, 공조시스템, 차량경량화 및 배터리 등의 부품개발을 통하여 **준중형급의 완성차 개발**, 3년('11~'13년)간 **약 600억원 지원**

○ **기술개발 조기 지원**을 통하여 '17년 양산계획을 3년 단축하여 **'14년에 조기 양산체제 구축**('11년 착수)

□ **(조선) 저탄소 녹색선박**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조선기자재의 직수출 확대**를 통해 조선산업 세계1위 탈환

○ 2013년경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온실가스 감축규제 발효에 대응하여 **선박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가속화

○ 조선기자재의 **글로벌 A/S 네트워크 및 e-Market Place**를 구축하고, 파워보트 기술개발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을 **수출산업화**

* 실시간 A/S시스템 구축('11.1월), e-Market Place 구축('11.9월)
* 조선기자재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억원) : ('09) 30 → ('10) 10 → ('11) 10

□ **(플랜트) 핵심기술 국산화** 및 **EPC·기자재 동반 해외진출**

○ **해양플랜트 미래선도기술** 대형 R&D, 엔지니어링·플랜트 핵심 원천기술 통합 개발 추진

* 해양플랜트 미래선도기술 개발 : '11년부터 5~6년간 민관합동 총 3,000억원 투자

○ 벤더등록·F/S 등 **기자재 수출확대**, 국제 **플랜트전 개최**

* 제1회 국제 플랜트·기자재전(IPES 2011) : '11.9.28~10.1, KINTEX, 벤더설명회 개최

□ **(철강·화학)** 차세대 **핵심소재의 생산기지화** 및 **철강·화학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 **스마트 철강*, Nova 케미칼**** 등 핵심소재 자립기반 구축

* 고강도·초경량 스마트 강판('11~'18, 1,040억원)

** 전기차 등 2차전지용 고효율 전극소재('10~'18, 1,000억원) 등

○ **산업 전반의 융·복합화, 소재간 수렴 추세**에 따라 **異업종간 경계 허물기**를 통해 **소재의 융·복합화** 및 **종합 소재기업화 지원**

* 철강 → 신소재, 정밀화학 → 전자정보 핵심소재, 일반 광물 → 희유금속

□ **(기계)** IT·마케팅·서비스 융합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Global Top Brand 육성**

○ 인쇄전자시스템* 등 IT융합 신제품 개발, 제품 중심의 R&D 지원, i-Manufacturing 확대, 기계설비 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추진

* RFID등 정밀유연기판 제작기술('11~'17, 2,500억원)

□ **(섬유)** 초경량 첨단 산업용섬유 개발, *i*-Fashion 확산 등 **IT+섬유 융합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 탄소섬유, 메디컬섬유, 슈퍼섬유 등 **첨단 융합소재의 조기 산업화 촉진**을 위한 **패키지형 R&D 지원 추진**

* 탄소밸리 구축('11-'15, 1,991억원), 메디컬섬유('11-'15, 952억원), 슈퍼 융합섬유('10-'14, 1,402억원), IT+섬유공정 융합형 유비쿼터스 시스템 개발 추진('11-'14)

□ **(로봇)** 대표적 융합분야인 **서비스로봇의 해외진출 역량**을 확보하고, **RT융합제품·전략부품개발**을 위한 R&D 추진

○ 시장성, 기술경쟁력 등을 감안한 **시장돌파形 "8대 RT융합제품(BEST-8)"을 선정·개발**

* 「BEST-8 제품 및 6대 전략부품 개발계획」을 수립('11.2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항공)** **차세대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로 국내 항공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민수 완제기 시장 진입**

○ **'11년 탐색개발**('11~'13년) **착수를 통해** 완제기 개발에 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14년 본개발**('14~'19년) **착수**

* 총 사업기간/규모: '11~'19년 / 11,000억원(정부 7,700억원, 민간 3,300억원)

라. 융합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

◇ 융합의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 산업융합 촉진 전략**(범부처)」 수립('11.상반기)

□ **(기반 구축) 산업융합촉진법 본격 시행** 등 융합촉진 기반 마련

○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자금 확충**

*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융합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11.상반기)

*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융합 신산업 육성자금' 신설(중기협력자금 1,400억 활용)

○ 범정부 융합정책 추진체계(총리 주재, 산업융합발전좇(가칭))를 신설('11.3) 하고,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 융합촉진의 구심점으로 활용('11.하반기)

* 산업융합 옴부즈만을 임명('11.6) 융합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방안 발표 ('11.10)

** 주요역할 : 융합산업로드맵 수립, ConTech 운영, 중소기업 지원

○ 산업화 조기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 전문인력 양성**

* '11년중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2-3개 지원 추진, 융합형 설계인력 양성 등

□ **(제도 개선)**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 해소**

○ 산업간 **칸막이 규제를 개선**('11.2월)하여 **융합 R&D 확대**

* (예) 산업융합원천기술 내역사업간 칸막이 폐지 : 로봇/섬유 융합기술개발 과제 → 로봇, 산업소재 분야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융합 신제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Fast-Track 인증 도입**

* 신제품인증 근거법규가 없거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일괄적 처리제도 마련

□ **(소통 강화)** 이종산업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융합의 저변을 확대**

○ 이종산업 그룹의 **포럼활동**을 지원(융합 Item 발굴 트랙)하고, 우수 그룹대상 **'융합교류회'를 설치**하여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 그룹의 포럼활동에서 도출된 융합R&D 과제는 R&D 지원시 가점부여

○ 사이버상 **'ConTech'** 코너를 **신설**('11.上), **전문가 교류의 장**으로 활용

* 네이버의 '지식인' 처럼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 활성화 유도

○ '산업내 융합'을 넘어 **디자인·문화예술간 시너지 창출노력 강화**

* 감성기술(HT) 활용을 위한 산업-문화예술 융합 컨퍼런스(지경부-문광부) 개최

마.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 핵심부품 **기술력 강화** 및 중국 등 **글로벌 新시장 공략**을 통해 **부품소재 세계 5강(G-5)** 진입

* 對中 수출 확대(억불) : ('00)90 → ('10)822 → ('15)1,000
* 부품·소재 對日 의존도(부품·소재 對日수입액 / 對世界 수입액) 개선(%) : ('00)28.0 → ('10)25.4 → ('15)23.0

□ 부품·소재 경쟁력 고도화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WPM)

* WPM : 세계시장 선점 10대소재 사업('11~'18, 9,000억원) 본격 추진

○ **수입 100대 품목**에 대해 핵심기술 **획득전략 추진**

* 핵심기술 보유기업 투자유치, 공동 R&D 추진

○ 업력, 현장기술력을 갖춘 생존력있는 **중소 부품·소재기업**(풀뿌리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맞춤형 R&D과제 발굴, 애로해소 등)

○ 부품·소재특별조치법 개정 및 일몰연장, 소재 정보은행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부품소재 육성** 환경을 개선

* 부품소재특별조치법 '11.12.31일 일몰 예정

□ 글로벌 시장진출 본격화

○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한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전략 수립·추진**('11.상반기)

○ 국내 부품·소재기업-해외 수요기업간 **공동 R&D 및 글로벌 아웃소싱 참여** 등 **글로벌 파트너쉽*** **지원 강화**

* '11년중 미국, 중국, EU 등 5개권역 GP사업 추진, 국내외 1,000개사 참여 전망

○ 글로벌 M&A 전문펀드 설립, 수요기업 발굴·매칭 등 국내기업의 **해외 우수기술 보유기업 M&A** 지원

* 글로벌 부품·소재 M&A펀드(3,000억원), 한·일 파트너쉽펀드(1,000억원) 활용

○ 수요기업-부품·소재기업간 **신뢰성 협력사업** 및 민간중심 **신뢰성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품·소재 신뢰성 제고

* 테크노파크 등 전문적 신뢰성인프라를 갖춘 민간인증기관 추가 지정·운영

2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없는 이행

◇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이행 준비**

□ 제도 운영 본격화

○ **(목표관리 추진)** 372개 관리업체의 **합리적인 목표설정, 인벤토리 구축, 최적의 이행체계** 마련

- 특히, 업종별 **지원대책**, 그린크레딧 등 **중소기업 목표이행 지원***, 우수 감축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마련

* 그린크레딧 추진체계 구축, 인벤토리, EMS(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 이행기반 구축 지원

** 실적 초과달성 업체에 대한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관계부처 협의)

○ **(온실가스 감축지원법) 기후변화대응에 취약**한 산업·발전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법적 지원기반 마련**을 **검토**

* 온실가스 감축·탄소포집·처리 R&D 확대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인벤토리 구축, 기술지원 등

○ **(CDM 활성화) 유망 CDM 사업**에 대한 탄소펀드 등 지원확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자발적 감축활동 지원**

* 발굴된 CDM사업에 대한 현지 정밀타당성조사비용 지원(건당 최대 2억원 이내) 및 탄소펀드 자금지원 확대

** ACE(ASEAN Center for Energy)와의 사업발굴 협력 체계 구축

○ **(감축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기술 마스터플랜***, 제2차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마련** 등 **그린에너지 R&D 추진 기반조성**

* 각 온실가스 감축기술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 우수기술, 현장적용 가능기술, 사업장 최적화 기술 등 마스터플랜 수립

□ **'新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 산업계 등 **국내 대응역량 제고**

○ **(기업의 자발적 참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대한 **체계적 진단·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유인체계 마련**

*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적 경영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현황을 체계적으로 평가·발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11.하반기)

- 주요 산단에 온실가스감축 One-Stop **지원서비스센터 설치,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KCER) **제도**를 中企 중심으로 **개편**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및 업종·지역·기술D/B 등에 대한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운영**

*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에관공에 통계기반 운영팀 신설('11.1~2월)

○ **(인력 양성)** 온실가스 감축분야 등 **기업주도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및 그린에너지기술 **국제협력**** 전략 수립

* 매년 2개 분야, 총 10개 연구실을 선정하여 미래기술분야 R&B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GET(Green Energy Technology)-Future" 사업 신규 추진**

** 양자·다자간 국제 협력 강화, 해외 R&D 현황 및 우수 연구 기관 정보체계 구축, Top-down식 R&D 기획 도입, 국가별 협력 전략 수립 등

○ **(글로벌 규제 대응) 의무감축국 편입 압박***, 국가간 온실가스 관련 **무역조치** 및 **각종 규제정책** 도입** 등에 **능동적 대응**

* 기후변화협상 전반에 대한 장기적 대응전략 수립,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추진과 함께, 우리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한 국제적 인정 확보

** 국경조치(탄소관세), 탄소라벨링 등 각국의 감축 정책 및 조치에 따른 주력 업종별 환경경쟁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녹색생활)** 탄소캐쉬백, 탄소중립 등 **녹색생활 프로그램**에 지자체, 국민들의 **자발적·실천적 참여** 방안 수립·추진

* 일반 소비자·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자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자부심 고취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신청기능 강화 등 참여방식 간소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형 녹색참여 프로그램 모델 개발 등

나.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수출 400억불**의 **新주력산업**으로 육성

□ **세계시장 선점형 전략적 R&D 추진**

○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주도 8대**** **부품·소재·장비개발** 지원을 강화

* 태양광(실리콘계 고효율·초저가화 및 박막, 염료감응 등 차세대 태양전지), 풍력(대형 해상풍력, 부유식), 연료전지(SOFC), 바이오(목질계, 해조류), IGCC 등

** 태양광(소재, 장비), 풍력(기어박스, 베어링, 블레이드 등), 연료전지(전해질, MEA)

○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源별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Test-bed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

* 4~5개 源별 대상 구축('11년 200억원)

□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 우체국, 항만, 학교, 섬, 도로, 군시설, 공장건물 등 보급효과가 큰 **10대 중점대상**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

○ **'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 **시행을 대비**, 모의 운영 및 개선

○ 해상풍력개발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 Top-3 로드맵 추진**

* '13년까지 100MW 실증단지 구축, 해상풍력 개발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

□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15년까지)**

○ **「해외인증획득→해외프로젝트 발굴→타당성조사→해외시장진출」** 全주기적으로 지원('11년 90억원)

○ 해외진출시 **공적개발 원조**(ODA), **동아시아 파트너쉽** 등 적극 활용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위한 Korea 컨소시움 구성

【참고】 스마트그리드/원전 성장동력화 추진

< 스마트그리드 상용화 기반확대 >

□ **제주 실증단지**를 통해 전력망+통신·수송·가전 등 **이종산업간 新사업모델 개발**

* (스마트홈)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력정보제공 및 원격제어, 실시간요금제와 연동하는 스마트가전 등
* (스마트카)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배터리교환, 전기차 텔레매틱스

□ **국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청정에너지장관회의('11.4)시 ISGAN(국제스마트그리드 협의체) 사무국 한국 수임 추진
* 한-일리노이州 협력사업(시카고 충전인프라, 빌딩에너지효율화, 공동실증) 등

□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지능형전력망법」 제정**

* 기술개발, 실증, 표준화, 정보보호 등 기본계획 수립
* 전국적 확산·투자전략 수립 및 사업자 등록, 투자비 지원체계 마련

< 추가 원전 수출 및 수출산업화 >

□ **제2, 제3의 원전수출**로 **한국원전 위상 공고화**

* UAE 원전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대외신인도 제고('11년 해상공사 완료, 주요 기자재 제작착수)
* 원전수출체계 정비 및 전문성 강화로 원전수주 능력 제고
* 원전도입국의 원전 전문인력 지원 사업 예산확충('10: 4억원 → '11: 16억원)

□ **한국형 명품원전 개발 착수** 및 **기자재산업 육성**

* 원전 R&D 확대 및 한국형 원전 기술자립 완료(`12년)
* 중장기 원전기술 국가로드맵(Nu-Tech 2030) 수립
* 원전기자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 부품 R&D, 해외 벤더등록 등 전략 수립(`11.3)

□ **산학연 연계형 현장·고급 전문인력 양성**('20년까지 11,900명)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인가('11) 및 개교('12), 원전특성화대학교 지정('12년까지 10개), 원자력학과 신설('11, 부산대·POSTECH), 폴리텍대학 과정 개설,('12년), 원전 마이스터고 운영

다.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의 구축

◇ 희토류 등 **자원수급불안 가능성** ⇒ **산업전반의 자원효율화로 극복**
※ 국가 자원순환 촉진전략 수립(`11.9월)

□ **산업전반의 자원생산성 향상 환경 조성**

○ **(기반 구축) '자원순환 산업정보센터*'**를 설치, 자원흐름 및 기술동향 분석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기술동향 분석, 자원관리기법 보급, 물질흐름분석 등을 수행

○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 자원의 효율적 사용목표**를 **기업이 설정**하고 자발적인 목표달성을 유도

* 자원소비 절감필요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11년 5개 기업 대상)

○ **(녹색경영 확산) 녹색경영체제 인증, 녹색경영 평가교육의 강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영* 확산**

* 물질흐름원가회계(부산물·폐기물에 대한 원가관리), 청정생산기법 등

- 에너지·자원절약,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 CO_2 감축 경영활동의 공식적 확인을 위한 **녹색경영체제 인증** 실시('11.7월)
- 실무 중심 녹색경영 지역순회교육 실시('11.1~2월), 대한상의 소속 300개 업체 **녹색경영 수준평가** 실시('11.3월)
- 기업 활동 전과정의 녹색수준 제고를 위한 무오염 생산공정·청정 소재개발 등 **그린化 생산기술 개발·보급**

□ **그린 비즈니스산업 창출**

○ **(자원산업)** 중고품, 기업 부산물·배출물 등을 순환이용하는 **도시광산, 재제조, 생태산업단지** 등 자원순환형 산업 육성

* 도시광산 : 희유금속 추출 등 R&D지원('11년 95억원)
재제조 : 품질인증 대상 확대 ('10:4 → '11:11품목) 및 공동 A/S 시스템 개통('11.6월) 등
생태산업단지 : '10년 46개 과제, 75억원 → '11년 56개 과제, 78억원

○ **(자원절약전문기업) 자원절약 비용절감**에 따른 이익을 **수요기업과 전문기업이 공유**하는 사업모델(RESCO) 발굴·육성

* 제조업체와 자원절약전문기업(Resource Efficiency Services COmpanies)간의 협약을 유도하고, 자원 사용량 저감기술 R&D 수요발굴·지원 추진('11년 5개 기업 시범사업)

○ **(신사업 육성)** 산업활동 **전과정의 에너지·자원절감**을 유도하는 **그린 비즈니스 新사업 창출**

* (예) 화학물질관리서비스 : 전문기업이 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축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부하 저감('11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시범사업 추진)

제3자 물류 : 입하, 저장, 재고관리, 분류, 배송 등을 전문업체(3rd party)에 위탁하여 유통과정 자원소비 및 CO_2 배출감축

□ **주력산업 녹색화 확산**

○ **(철강)** 철 스크랩 **유통질서 개선** 및 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철 스크랩 **사용 확대 기반 조성**

* 철 스크랩을 주원료로 하는 전기로는 용광로 방식에 비해 CO_2 배출량이 1/5수준

○ **(석유화학)** 단지내 원료 및 부산물 재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기업간 석유화학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원(배관 연계망 구축 등)

* 울산시와 협의하여, 단지내 다수의 배관망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물 구축 중('11~'15년)

○ **(제지)** 폐지 **공동 집하장(9개) 건설** 및 **「폐지유통관리기구**(가칭)**」 설립** 등 폐지 재활용 확대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 제지·폐지·포장업계 및 폐지 수출업계 공동 참여로 재단법인 형태 설립

○ **(시멘트)**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용융슬래그에 석회석 등 원료를 직접 혼합하여 생산하는 **시멘트 제조 기술개발 지원**(5년, 45억원)

* 일반 시멘트 1,000만톤을 대체시, 유연탄 소비량 80만톤(1,200억원) 절감

3 안정적 에너지·자원 기반 확충

가. 국내외 자원개발 지속 확대

◇ **자주개발률 목표** : **(석유·가스)** ('10 잠정치) 10% ⇒ **('11) 13%**
(6대전략광물) ('10 잠정치) 27% ⇒ **('11) 29%**
(新전략광물) ('10 잠정치) 5.5% ⇒ **('11) 10%**

□ **석유·가스 개발 본격화**

○ **(석유공사 대형화)** 유망자산 인수 추진, 신규탐사 사업의 성공률 제고, Dana社 등 인수기업의 안정적 통합작업 추진

○ **(가스공사 Upstream진출)** 가스도입 위주에서 탐사와 가스전 매입 및 생산운영체제로 확대 추진

○ **(중동개발 본격참여)** 한-이라크 경제협력협정 체결, 자원협력위·경제협력포럼 개최 등을 통해 중동 자원협력 본격화

□ 6대 **전략광물**(유연탄, 아연, 니켈, 철광, 동광,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

○ **(자주개발 부진광물 확보)** 유망광산 보유 기업과의 M&A 및 동·우라늄 주요 부존지역인 중남미·아프리카와의 협력기반 강화

* 자주개발률('10년) : 동 6.2%, 우라늄 3.5%
* '11. 1/4분기 칠레, 아르헨티나 등과 자원협력위 개최, 아프리카 지역 內 자원협력위 설치 확대

○ **(동반진출 활성화)** 광물공사의 대외 신뢰도와 민간기업의 마케팅·자금조달 역량 등을 결합하여 동반진출 모색

□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新전략광물**(희토류, 리튬) 확보

○ **(국내외 광산개발)** 중국外 **제3국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내 **11개 희유금속 유망 부존지역 탐사**('~13)

* 리튬삼각지대(칠레, 아르헨, 볼리비아), 중앙아 등

○ **(비축확대)** 국내 최초 희유금속 비축기지 완공('11.하반기)

* 35일분 비축가능(비축규모 : '10년 8.1 → '11년 13.5일분)

○ **(국제공조 강화)** 희유금속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의 협력, APEC 등 다자외교를 통해 수급불안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

나. 에너지 공급 기반 강화

□ **(석유)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여수:'12년 완공, 울산:기본설계), **비축유 구매**('11년 1백만배럴)·**국제공동비축**을 추진하고, 現**비축제도 평가** 실시

○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혼합비율 의무화** 방안 검토

□ **(천연가스)** 중장기 수급 안정을 위해 호주 등과 **LNG 신규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

○ **LNG 저장시설**(저장탱크 6기 완공, 삼척 5기 착공) 및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충**(금산, 상주 등 6개 지역 공급개시, 공급배관 설치비 융자 확대)

□ **(전력)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설비 건설지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인센티브 제공, 보상범위 확대 등

○ **발전부문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확립하고, **회계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보장**

* 발전6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지침 시행

□ **(원전) 최적의 신규 원전부지 선정** 추진 및 **방사성 폐기물의 차질 없는 관리**

○ 원전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평가하여 **신규부지 최종선정**('12.12)

* 11년중 후보부지 압축

○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저장·처리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마련**

○ 2단계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처분방식을 결정하여 **본격 추진**('11.6)

다. 에너지절약의 산업화와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본격 육성**

○ **(수요 확대) 「따사론」 아파트 ESCO사업 추진** 및 노후 **공공건물의 ESCO 의무화**를 통해 ESCO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

- 난방효율 향상, 공용조명 교체(LED) 등 **아파트 ESCO 사업의 전용브랜드 런칭 및 사업 추진**

○ **(역량 강화) 정책자금 확대, ESCO 펀드 조성** 및 **"20-20-20"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 노력 강화

* 정책자금을 1,350→3,900억원으로 확대, 1,500억원의 ESCO 펀드 신규 조성
* **'20년** 세계시장 **20%** 점유가 가능한 **20대 에너지절약기술**(EETech 20)의 선정·육성

□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에너지절약 유도**

○ **에너지가격**을 **공급원가에 맞게 현실화**하여 에너지절약 유도

*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실시('11.7), 가스요금 계절별 차등요금제 확대시행 검토
* 소비자 그룹(가정·산업)간 에너지가격 교차보조 조정

□ **부문별 에너지절약 지원 강화**

○ **(산업) 8개 지역거점**에 「**중소기업 에너지절약 종합지원센터**」 설치

* 중소기업용 EMS(에너지경영시스템) 개발·보급

○ **(수송) 연비향상** 위한 **타이어 효율등급*** **표시제 도입** 및 **경제운전 패키지**(경제운전 표시장치, 공회전 제어장치, 공기압 측정) **지속 확산**

* 연비에 영향을 주는 마찰저항, 주행안정성을 나타내는 접지력 등 표시

○ **(가정·상업)** 고효율기자재 **기술개발 주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의 시험항목 면제 등 **인센티브** 강화

* 고효율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우선구매, 장려금('10년 545억원) 지원(46개 인증품목)

○ **(공공) 1만m^2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에너지진단**(5년 주기)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ESCO 사업 연계** 추진

V. 무역 1조불시대, 선진경제 구축

2010년의 성과 : 수출 세계 7위로 도약

◇ 중국·인도 등 **신흥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4,650억불)을 내며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09년 9위)

*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수출 세계 7위 달성(`10년)
* 對신흥국 수출비중 : ('90)30.3 → ('00)48.6 → ('10.1~10월)71.9%

◇ **신흥국과의 협력 파트너쉽 확대**를 통해 **잠재적 수출시장**에 **진출 교두보**를 마련

* (중국) 한-광둥성 경제무역발전포럼(`10.5월), (중동) 한-오만 경협위원회(10월), (아프리카) 한-알제리 경제협력 T/F 회의(4월),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10월)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신흥국에 대한 리더쉽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기회** 창출

○ 2011년 과제 : 무역1조불 선진경제의 원년으로

□ **신흥시장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선진시장**은 **FTA**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협력 기반을 강화

□ 무역 1조불 경제를 뒷받침할 **선진형 R&D·자금·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

□ **G20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대내외 역할과 책임 제고**

【참고】 무역 1조불 시대 달성의 의의

□ 우리 무역은 2011년 무역 1조불 달성이 기대됨

○ 거시경제모형 분석, 업종별단체 전망 등을 고려시 **수출은 5,130억불**(전년동기대비 10.3% 증가), **수입은 4,880억불**(15.1% 증가), **무역 규모는 약 1조 10억불 전망**

< 2011년 우리나라 수출입 전망(단위: 억불, 전년동기대비 %) >

구분	2009년도	2010년도P	2011년도P
수 출 (증감율)	3,635 (△13.9)	4,650 (27.9)	5,130 (10.3)
수 입 (증감율)	3,231 (△25.8)	4,240 (31.2)	4,880 (15.1)
무역수지	404	410	250

* 달성시점 : 무역 1억불(`51년), 100억불(`74년), 1천억불(`88년), 5천억불(`05년)

○ **(해외)** EIU, Global Insight 등은 우리나라 무역전망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며 **내년도 무역 1조불 달성 가능성을 전망**

* Global Insight(`10.11월 전망): 수출 5,320억불, 무역 10,070억불
* EIU(Economic Intelligency Unit, `10.12월): 수출 5,247억불, 무역 10,068억불

○ **(국내)** 최근 내년 전망을 발표한 KDI, **무역협회 등의 기관들도 무역 1조불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음**

* KDI 10,487억불, 무역협회 10,010억불, 한국은행 9,915억불

□ 무역 1조불은 진정한 경제대국의 지표

○ 세계에서 **무역 1조불을 달성한 나라는 지금까지 8개국**에 불과

* 무역 1조불 달성 :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 무역 1조불 **8개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5%(`09)**

< 무역규모 1조불 달성 국가와 시기 >



○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불 이상의 선진국

1 글로벌 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

가. 도약하는 신흥시장과의 파트너쉽 강화

◇ **신흥시장 : 우리의 핵심시장이자 전략적 파트너**
⇒ **무역 1조불 달성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G20정신을 살려 **신흥국과 동반성장 적극 모색**

□ **(적극적 시장진출)** 내일의 시장을 내다보는 선제적 진출 추진

○ 신흥시장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지원강화 및 **터키·멕시코 FTA협상 신속진행**
* 전략적 해외마케팅지원계획 수립·시행, '해외마케팅 지원포탈'구축

○ **조선, IT, 전력망, 전자무역 구축 프로그램**을 신흥국에 전수하고 기업투자 연계로 **자원개발-플랜트 진출 확대**
* 신흥국 성장단계를 고려한 협력로드맵 수립('11.상), 협력컨텐츠 구축(연중)

○ 사업발굴, 재원조달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ODA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 지경부, 유관기관, 기업 등으로 ODA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11.상)

□ **(산업육성 지원)** 한국과 신흥국의 동반성장형 산업협력 확대

○ 국가별 강점·성장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표준 협력 확산**
* 국제표준인프라사업을 통해 우리표준 보급(아세안·중남미 대상 30개국 표준정책 전수)

○ 신흥시장 중심으로 **무역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글로벌 무역인력양성 사업(年 1,000명)의 신흥시장 비중 확대('11년 70% 목표)

□ **(무역기반 강화)** 코트라 **KBC확충, 무역보험**, 국가 **무역·통상정보 유통체계** 구축 등 무역 1조불 달성을 위한 기반 강화
* 신흥시장내 KBC (`10:62→`11:74개), 무역보험 지원규모 (10)190→(11)200조원, 관계기관간 '국가 무역·통상정보' 구축·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협의회 운영 등

【참고】 신흥시장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진출 다각화

◇ **(신흥국 중산층 시장)** 신흥 중산층 **소비시장 진출** 및 **교역 확대 노력 강화**(중국, 인도, 아세안)
◇ **(자원개발과 인프라시장) 인프라 진출**과 **자원협력 연계**로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아프리카, 중동 등)

□ **(중국)** 권역별 **산업·소득 특성**을 감안, **신흥 중산층 마케팅 지원** 및 양국간 **미시적 협력과 교류채널 확대**

○ **분야별·지역별 유망시장**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11.1월)
* (부품소재) 環황해: 자동차SW, 화동: 아웃소싱·태양광, 화남: IT·전자, 동북: 조선
* (소비재) 베이징·상하이: 고급소비재, 칭다오: 웰빙제품, 충칭: 내륙거점 활용
* (프로젝트) 도시화 관련 시장(U-City, LED가로등, 지능형교통망, 폐기물, CDM 등)

○ **민간채널·정부간 협의체**(중앙, 지방정부) 활성화 및 **진출기업 경영지원 강화**
* 한·중 투자협력위, 재중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 등을 통해 진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 지역별 협력강화 : 한-광둥성 경제발전포럼, 중부무역투자박람회, 동북아박람회 등
* 진출기업 애로해소·지원을 위한 콜센터 설치, 진출단계별 경영컨설팅 실시 등

○ 녹색·에너지 **신산업 협력강화** 및 **서비스·온라인 신시장 개척**
* 한중녹색경제포럼 개최, 상무부·발전개혁위와 녹색산업협력채널 구축 등

○ 한-중 FTA 적극 모색 (업종별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등)
* 중-대만 양안경제협력협정(ECFA) 체결로 539개품목 단계적 관세인하 착수('11.1.1~)

○ 지경부내 **전담조직**(중국협력기획과) **본격 가동**
* 한-중 산업협력 강화, 교역확대 방안 정책 수립, 중국 실물경제동향 모니터링

□ **(인도·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중국에 이은 제2의 생산기지로 육성

○ **인도** : 델리-뭄바이 산업대동맥 프로젝트 등 **대형 인프라 진출** 지원 및 IT·소프트웨어 분야 **인력교류, 기술협력** 추진
* 인도 주요 도시별 진출전략 로드맵 수립('11.상)

○ **아세안** : **메콩강 유역국*** **투자** 진출 본격화, 일관제철소(인니)·바이오연료(말련) 등 **진출 다변화**
*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국가와 산업협력위 개최('11.하)

□ **(아프리카)** 새로 부상하는 **플러스알파 시장**("+α frica")에 대하여 개발경험 공유와 파트너쉽 구축

* 아프리카 성장률 전망(Global Insight) : (`10)4%→(`10~20)5.8%
* `03-`09년간 對아프리카 플랜트 수주액은 전체 수주액의 12.7% 차지 (242억불)

○ 아프리카의 **시장·자원**과 우리의 **플랜트 수출 및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연계**하는 전략적 진출 모색

* 유망 자원개발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조사 자금, 에너자자원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 중점협력국 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거점국가**(알제리 등), **중점분야**(건설, IT)에 **협력 역량 집중**(아프리카 KBC : '10:4→'11:7개)

○ **ODA, 정부간 협력사업, 민관파트너쉽 진출 확대, 고위급 방문**을 통한 자원·플랜트 협력 활성화

* 아프리카 순방을 통한 자원개발과 프로젝트 수주 지원 ('11.상)
* 한-아 산업협력포럼, 한-아프리카 전문가협의체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

□ **(중남미)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SOC 인프라분야** 등으로 **시장진출 분야**를 **다변화**

○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비한 SOC건설, 플랜트, 중장비수출 지원

* '14년 브라질 월드컵, '16년 리우 하계올림픽 개최

○ **시장정보 조사·연구, 현지 네트워크 활성화, 물류·A/S망 확충** 등 기업 진출지원 시스템 강화

* 한-브라질,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 개최, 산업분야별 비즈니스 사절단 활성화 등

□ **(중동)** 민관 경협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 협력을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이슈 발굴, 정보 기능 강화**

* 제3차 한-오만 경제협력위('11년 3/4분기, 서울), 중동 진출 전문가 포럼 운영

○ UAE 원전건설과 연계 ICT마스터플랜,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추진

□ **(중앙아)** 중앙아 **산업다변화 전략과 연계**한 정부간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민관공동 자원개발 및 SOC 사업진출 확대**

○ **정상회담, 공동협력위** 등에서 발굴된 **협력의제 후속조치** 추진

*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화학플랜트, (카자흐)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해상광구 공동탐사, (투르크) 육해상 광구 공동조사, 항만현대화 등

나. FTA를 계기로 선진시장 새로이 개척

◇ 미국·EU내 **우리 점유율은 답보**, 위기이후 **시장정체로 경쟁 격화**

* 미국시장 점유율 : (06)2.5 → (07)2.4 → (08)2.3 → (09)2.5%
* EU시장 점유율 : (06)3.0 → (07)2.9 → (08)2.5 → (09)2.7%

⇒ **한-미·EU FTA**로 수출 확대와 협력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 (한-미) 자동차부품 관세 4% 발효즉시 철폐 → 대미 수출증가 및 현지 진출기업 경쟁력 향상
* (한-EU) LCD 관세 5% 발효즉시 철폐 → TV·태블릿PC 등 EU시장 진출확대

⇒ **중·일과의 FTA**도 착실히 준비하여 **4대 통상강국**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 **(전략적 지원)** 자동차 부품 등 FTA 수혜품목 중심으로 **수출 확대·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

* 전략지원기간(11.3월~11.9월)을 지정하고 전방위 지원활동 전개

○ 특히, **부품소재시장 수출기반 확대**에 따라 旣진출 대기업-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

*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전문무역상사 활용강화, 공기업-중소협력기업 동반진출 지원 등

□ **(활용 지원)** 기업이 **FTA 체결을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컨설팅·인력 양성 등 지원을 확대

* '기존무역정보+FTA관세정보'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FTA 전문가 양성 등

□ **(취약기업 지원)** 취약기업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경쟁심화 부문 R&D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지원

* FTA피해기업에 대해 경영혁신·사업전환·융자·컨설팅 지원('11년 202억원)

□ **(첨단분야 협력)**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등 첨단분야 산업협력 확대

* 자동차부품연구원-美아르곤연구소 그린카 공동개발협력사업(지경부-美에너지부)

2 G20 시대의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

◇ 투자규모 중심에서 **신성장동력,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투자유치(『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 수립)**

* (`10년) 지난 6년간 최고수준인 120억불 유치

◇ **경쟁국 특구와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 모델 정립

□ **(투자유치 대상국) 전통적 투자국**은 **FTA를 적극 활용**하고 **신흥 투자국**은 **맞춤형 유치기반** 구축 등 **투자국 다변화**

○ **(미·EU) 부품·소재분야 투자유치 강화** 및 **서비스 시장개방**을 활용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구축

○ **(중국·중동 등)** 국부펀드 등 신흥국 자본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유치활동 강화**

* 차이나 데스크 활동강화, 한중 투자협력포럼 창설, 중국내 권역별 특화전략 마련
* 러시아, 인도 등 신규 지역 대상 투자 IR 개최

□ **(투자유치 분야)** 투자금액 위주에서 **기술·고용·지역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 추진

○ **산업분야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술보유 기업을 타겟팅**하여 유치 역량을 집중

○ 고부가 **서비스분야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한-미, 한-일 FTA에의 대응력 제고

* 지식서비스, 관광, 물류SOC, 금융 등 4개 서비스 프로젝트 조기성공사례 도출 ('10.9월 서비스 FDI 활성화방안 수립)

○ 조세·현금지원·부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금액 중심에서 파급효과 중심으로** 재편

- **전략적 유치협상**이 가능하도록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고용·지역발전과의 **연계성** 강화

□ **(투자유치활동)** 외국기업의 일방적 국내진출을 넘어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상호 호혜적 동반성장**의 계기 창출

○ 우리기술과 외국자본의 결합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국내외 기업간 **공동 R&D·마케팅** 등 **다중협력 사례 창출**

* 중동자본+한국기술을 바탕으로 제3국 진출(SOC, 자원개발)형 유치모델 창출 등

○ 유망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지원**도 강화하여 **투자유치**(Inbound)와 **해외투자**(Outbound)의 **연계 강화**

* '11년부터 해외IR시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지원활동도 병행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외국 특구의 모방형에서 벗어나 우리 현실과 여건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모델 정립**

○ 우리나라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비전을 마련**하고 구역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 향후 10년간의 구역별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방향 정립

* 기본계획 포함 사항 :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 차별화 발전전략, 개발사업 및 입주기업 지원 등

○ 개발지연 지역에 대한 **조기개발 촉진***과 개발선도 지역의 **성공사례 공유·확산**을 병행하여 **개발성과를 가시화**

* 단위지구별 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6월) 및 개발진척률 주기적 점검

○ 산업특성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외국교육·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

* 「'11년 투자유치 전략방안」 수립(1월) 및 투자유치·홍보협의회 구성·운영
* 외국 교육기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합리화 : 유치대상 교육기관별 지원한도 차등 설정, 기부금 증여세 면제, 교육용 기자재 관세감면 등 추진

3 선진경제에 걸맞는 산업 플랫폼 혁신

가. 민간투자 유인형 R&D 지원체계 정착

◇ R&D추진체계 혁신('10.3)을 통해 정부 R&D 효율화 기반 마련
⇒ R&D혁신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여, **기업의 미래 투자 모멘텀을 확보**

□ **민간 R&D투자환경 조성**

○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 R&D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11.3)
* '11년도 R&D 투자 전망·애로사항 등을 분석, 해소방안 마련
* 퇴직 CTO, 퇴직 연구원, 대학교수 등을 활용, 「R&D 애로 해소센터」 운영

○ 기업들의 R&D 진입규제 완화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2단계 기술규제 혁신방안**」 수립('11.9)
*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기술관련 조항 분석 및 현장 실태조사 추진

□ **미래형 R&D 사업을 견인**

○ 건당 1,000억원 내외 대형투자과제인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11.1)
* (조기성과창출형과제) ①천연물신약, ②IT융복합기기용 반도체, ③그린 수송시스템, ④박막태양 전지, ⑤K-MEG 등에 최대 3년, 3,500억원 지원 계획('11년 952억원)
* (신시장창출형과제) 6~7개 과제에 최대 5~7년, 7,500억원 지원 계획('11.1 선정)

○ 民官 R&D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34개 주요 사업별 **'전략제품·기술 개발 전략' 수립**('11.3)
*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 이행을 위한 구체적·실천적 혁신전략

○ 녹색산업·新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녹색 중소·중견기업 육성체계 구축
* 「녹색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전략」 수립('11.3)

○ 新산업 육성과 국민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국민수요에 기반한 **「국민편익증진 R&D 종합전략」** 수립('11.6)

□ **기술혁신 인프라 지속 확충**

○ 연구장비 **전담 관리기관을 지정**('11.3)하여 연구장비의 구매·유지·처리 등 **全 주기를 통합 관리**

○ 기업들의 국제 **공동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R&D 협력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
* Korea R&D Forum 개최('11.6), EUREKA 참여확대, 아시아혁신네트워크 구축('11.12) 등

○ **지식재산 전문회사('10.9)** 등을 활용하여 지식재산의 발굴부터 사업화·성장까지 연계시키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지식경제 R&D혁신을 확산**(정부혁신→현장혁신→혁신상시화)

○ **(1단계 : 정부혁신) R&D 혁신전략**('10.3)**의 차질없는 완료**
- 민간 전문가가 상시 참여하는 "R&D 전략기획단" 설치('10.6)
- 사업간 칸막이 최소화, 기능별 사업구조로의 전환(74→47개 사업) 등 **융복합 R&D 촉진형 사업구조 구축**
-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장비 전담기관 설치 등 **효율적 연구·투자 환경 조성**

○ **(2단계 : 현장혁신)** 현장 체감형 **R&D 프로세스 혁신**('11.3)
- 프로세스 全 주기에 걸쳐 **도전적 목표의 '설정 → 유지 → 달성' 구조를 설계**
* 성실실패 기준마련 등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R&D 프로세스 개선
*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성과 배분 등
- R&D 기획·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비 유용 환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R&D 추진**

○ **(3단계 : 혁신의 상시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11.하반기)
- 사업의 성과분석·평가를 강화, '성과→예산'으로 연결되는 **'성과연계형 사업·예산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11.하반기)

【참고】 R&D로 열어가는 산업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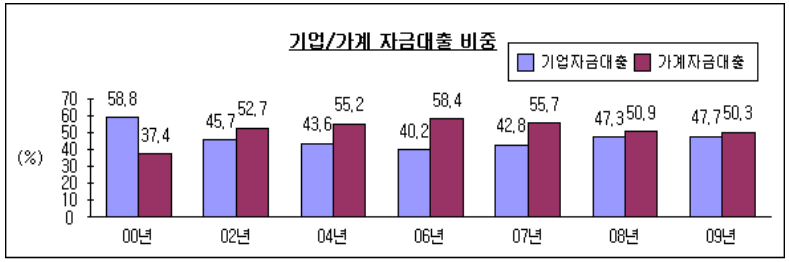
지식경제부 R&D 예산 : ('10) 4.4조원 ⇒ ('11) 4.5조원

구분	정부투자 ('11,억원)	주요추진분야	비전(11→16)
산업원천 기술 (산업+IT)	18,159	·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 바이오, 나노, IT융합 · 차세대 IT기술	3D 디스플레이 ⇒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녹색성장 기술	10,218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 수송시스템 · 신형상용원전(APR+)개발	하이브리드 수송기기 ⇒ 수소연료전지 수송기기 
부품소재 기술	4,179	· 10대 WPM 소재 · 20대 핵심부품소재	박막형 전도성기판 ⇒ 플렉시블 전도성기판 
광역권 기술개발	6,711	· 광역경제권선도사업 · R&D특구 · 산업집적지개발	대경권 연료전지특구 ⇒ 그린에너지 파워벨리 
산업기술 기반구축	6,953	· 산업전문인력지원 · 출연연구소 선진화	기업수요형 인재양성 ⇒ 산업기술인력 미스매치해소 

나. 산업의 수요에 맞는 자금흐름 효율화

실물경제와 금융간 괴리

◇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위험기피적 행태가 심화되면서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비중이 감소**



◇ 신기술 중소기업·벤처의 **투자재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와의 연계성은 미흡**한 편

* 신성장동력펀드, 중기청 모태펀드 등 정부출자펀드 1.5조원중 투자집행액은 17%(2,512억원)에 불과

◇ 원전·플랜트·고속철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관련 자금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경쟁력이 부족**

□ **실물경제**와 **금융간 연계강화방안 모색**

○ 중소·벤처, 중견기업 등 **기업유형·성장단계별**로 자금흐름, 투자금융 현황, 인프라 등 **실태 파악**(11.상반기)

○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산업-금융간 연계 **제도개선 추진**

※ 주요 검토방향

- 신성장분야 기술벤처형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방안
- 일반 중소기업 성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
-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경쟁력 강화방안
- 투자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 등 인프라·관리지표 확충

【참고】 우체국금융의 실물경제정책과의 연계 확대

◇ **안정성·수익성** 관점의 자금운용에서 **실물경제 성장과 연계한 투자기능**을 강화

□ **(동반성장 투자)** 우체국금융을 활용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

○ **(동반성장전략 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별 동반성장 전략과 연계**한 금융투자 활성화

* 사모투자(PEF), 실물펀드 및 채권형펀드 등의 투자수단 활용

○ **(신성장·녹색)** 우체국금융의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본투자 확대**

* 첨단융합 등 신성장 분야 4개펀드, 약정액 800억원('10.11월)
* SW M&A 펀드, 부품소재 M&A 펀드, 신성장동력펀드 투자('10.11월 123억원 旣투자)

○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은행 자금위탁을 통해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융자

* ('10) 2천억원 → ('11) 3천억원

□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개발 사업투자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확보

○ **(석유·가스)** 해외에너지 개발을 위해 선별적 금융 프로젝트 참여

* 현재 유전개발펀드 참여중(320억원), 향후 석유공사 생산광구 지분참여 등 검토

○ **(광물자원)**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사업 및 조달청 비축사업과 연계하여 희토류 등 新전략광물 투자 검토

□ **(지역개발) SOC, BTL 등 지역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

○ **(지역개발) SOC투자, 철도, 전력** 등 지방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

* ('06~'10) 2,404억원 → ('11) 1천억원

○ **(지역경제) 지방체신청에 대한 자금배정** 및 **지방 금융기관 예탁**을 통해 지방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

* ('10.10월) 1조2천억원 → ('11) 1조4천억원

다.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선진화

◇ **우리 인력양성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점**
- **청년실업**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
- 미래 성장동력분야 **핵심인재 양성 미흡**
-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 산업인력 부족 전망**

⇒ 인재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

※ 지경부, 교과부 등 공동 '산업인력 양성 TF' 추진, 근본적 개선방안 수립

□ **현장수요 지향형 교육제도 도입**

○ **(전문인력)** 산학융합지구 캠퍼스에 **'5년제 학석사 통합모델'** 도입

* 산학융합지구 입주대학에 '현장실습산학 공동 R&D프로젝트 참여' 프로그램 설계

○ **(현장인력)** 마이스터高에 **'독일식 이원화 시스템'** 도입

* 산업체와 현장실습 계약이 체결된 학생을 선발,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을 병행

□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

○ **(로드맵 수립)** 신성장동력별 인력 수급전망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기존 인력수급전망은 '산업별 생산액전망×취업계수'로 총량수요를 산출→ 구체적 수급전망에 애로

○ **(명품인재 양성)** 한국판 미디어랩 육성으로 신산업분야 세계 정상급 인재 확보

* IT명품인재 육성사업(11년 100억원) → 他산업으로 확산

□ **생산인구 감소에 선제적 대응**

○ **(해외인재 도입) 기능인력**에 대해 숙련도 검증 등 **도입기준을 개선**하고, **해외 고급인력** Pool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 유치** 추진

○ **(고령인력 활용)** 명장 등 퇴직 고숙련 인력을 활용한 '세대간 숙련순환시스템'을 구축

* 퇴직 고숙련인력 Pool을 구축, 중소기업과 매칭 →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을 혁신하고, 다음세대 숙련기술 전수

4 다함께 잘사는 선진 문화 확산

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CSR) 확산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부응,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 제정 ('10.11월), **G20 비즈니스 서밋의 주요의제**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논의('10.11월)

□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분위기 확산**

○ **맞춤형 ISO 26000 이행 가이드를 개발**하여 대·중소기업, NGO 등에 보급

*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간이 레포팅 가이드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사회적 책임 운영 우수사례 발굴, 사회적 책임 표준교육 교재 개발 등

○ 동반성장, 청년고용 등의 이슈를 포함한 **한국형 지속가능경영 모델을 개발**,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모델로 확산 추진

○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에 **경제단체의 역할 강화**

□ **효율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

○ 업종별, 지역별 **지속가능경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CSR 공통 이슈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들의 참여도를 제고

○ **해외진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체계** 구축

* 각국 현지의 사회적 책임 이슈 제공, 국가별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보급, KBC와 연계하여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CSR 활동 지원

○ **다문화가정**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개

나. 안전하고 편리한 경제생활 보장

□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법정계량단위 정착과 실량표시상품 인증 확대**

○ **법정계량단위 정착**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계도**와 함께 **강제 단속 병행** 실시

* 5회 이상 법정계량단위 사용 위반시, 청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예정

○ 생산·포장단계에서부터 상품의 허용오차를 관리하는 **실량표시 상품 자기적합성(K) 인증 품목 확대**

* 인증 품목 확대 : ('10) 97개 품목 → ('11) 150개 품목

□ **리콜제도 시행 대비 및 안전관리 종합체계 확립**

○ 범부처적인 **제품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개선

*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등

○ **사고조사센터를 신설**하여 제품안전사고를 분석·대응하고 시중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

* 시판품 조사 : ('10) 84품목 3,000건 → ('11) 100품목 3,300건

□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표준화 지속 추진**

○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하여 旣발굴된 과제의 표준화를 추진

* ('09~'10) 전국호환 교통카드, 가전제품 리모콘 등 21과제 표준화 완료
* ('11)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노트북 전원 어댑터 등 16과제 표준화 추진

○ **생활공감 표준제안 종합사이트('10.6 구축)** 등을 통해 표준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

다. 나눔과 배려의 행복사회 조성

□ 에너지 안전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에너지 안전**) **기초생활수급가구**(9만)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149억원), **사회복지시설**(3.2만개소) 가스·전기시설 **점검·교체**(10억원)

○ (**석유품질관리**) 유사석유단속, **정량미달 주유소 점검** 강화,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되는 **보일러등유 규격 폐지**

○ (**광해방지**) 휴·폐광산의 광해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12~'16) 수립**

□ 에너지절약과 복지의 연계

○ (**임대주택 ESCO**) 10년 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난방시설 개선,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등을 지원

* 2011년은 서울시 공공임대 아파트 3,7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전통시장 LED**) 전국 모든 전통시장(1,550개) 점포 내 백열등을 LED로 교체('11년 100억원)

□ 우정사업의 나눔경영 확대

○ (**친서민 금융 확대**)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10년, 166억원 지원효과)

* 차상위계층 우대금리(최대 3%) 예금상품 보급, 생계형 비과세 저축보험 공급 등

○ (**다문화 사회 지원**)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국내체류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우편요금 감액,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장밀착형 공익사업**) 우체국 네트워크와 예금·보험 자금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및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

* '95년~'10년, 257억원의 재원으로 18만명에 대한 지원('11년 50억원)
* 집배원 365봉사단 활동, 복지단체와 파트너쉽을 통한 맞춤형 복지사업